

콤팩트 뉴스

강정호 옆구리 염좌…10일파리 IL



강정호
로 앞친 데 덮친 격이다. 피츠버그는 14일(한국시간) “강정호가 왼 옆구리 염좌로 열흘짜리 IL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등재 시점은 13일로 소급 적용된다.

강정호는 올해 주전 3루수로 시작했지만 14일까지 타율 0.133(90타수 12안타), 4홈런, 8타점으로 부진하다. 지난달 27일 LA 다저스전에서 마지막 안타를 터뜨렸다. 시범경기 홈런 전체 1위에 오르며 지난 2년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지우는 듯했지만 정규 시즌 시작과 동시에 그 위력은 자취를 감췄다. 피츠버그는 1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는 투수 타석에 강정호 대신 다른 투수를 대타로 기용했다. 그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빠른 시일에 부상을 털고 메이저리그로 돌아와 활약하지 않는다면 향후 전망도 어둡다.

오타니, 홈런 포함 2안타 기지개



오타니

오타니 쇼헤이(25·LA 에인절스)가 복귀 자축포를 쏘아 올렸다. 오타니는 14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원정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 3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1-2로 뒤진 3회 무사 3루에서 상대 선발 호세 베리오스의 5구 속구를 공략해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오타니는 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 시절부터 ‘투타 겸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타자로 104경기 타율 0.285, 22홈런, 61타점을 기록했고 투수로 10경기에서 4승2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아메리칸리그 신인왕도 차지했다. 그러나 시즌 종료 후 오른팔꿈치 인대접합수술(토미존서지리)을 받았고 재활에 매진했다. 올해 투수로는 등판이 힘들며 타자로는 지난 8일 복귀했다. 이날 전까지 5경기에서 타율 0.190(21타수 4안타)를 기록하는 등 한 차례의 장타도 터뜨리지 못했으나 6경기 만에 기지개를 폈다.

매너가 암바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킥 차는 그날까지!

적투기 애능의 끝판왕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개국

한화 베테랑 최진행, 가장 필요한 순간 터졌다



한화 이글스 6번 타자 최진행(가운데)이 14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1회말 만루포를 쏘아올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날 최진행은 한화의 결승타점을 책임지면서 베테랑의 면모를 과시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독수리군단 비상 이끈 만루포…3289일만이야

키움전 1회말 125m 초대형 홈런
김태균 적시타·호잉 솔로포 지원
3연전 첫 경기 V…기분좋은 출발

베테랑의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순식간에 뒤바꿨다.

한화 이글스 최진행(34)이 9년 만에 다시 만루포를 신고했다. 최진행은 1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전에 6번타자 좌익수로 선발출장해 3타수 1안타(1홈런) 4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

했다. 팀의 7-3 승리에 결승타점을 책임지며 베테랑 타자의 몫을 톡톡히 해냈다.

팀이 한 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장타력을 폭발시켰다. 1회 팀이 0-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 그랜드슬램을 만들어 초반 유리한 분위기를 단번에 되찾아 갔다.

한화는 선발투수 김민우가 1회초 키움 중심타선을 상대로 볼넷과 안타를 내주며 선취점을 헌납했다. 끌려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화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1회 1사 만루 찬스를 잡으며 득점 찬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5번타자 이성열이 삼진

으로 물러나며 찬스가 무산되는 듯 했다.

이 상황에서 나선 게 바로 6번타자 최진행이었다. 키움 선발투수 이승호의 시속 126km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대형 홈런을 터뜨렸다. 한화는 단숨에 4-1로 달아나며 경기 초반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갔다.

최진행 개인으로도 의미가 큰 한 방이었다. 2004년 프로 무대에 입성한 최진행은 장타자임에도 이제까지 개인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 2010년 5월 12일 청주 LG 트윈스전에서 만루홈런을 때린 게 이날 경기 전까지 자기 프로 인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랜드슬램이었다. 이날 홈런은 그 후로부터 정확히 3289일 만에 나온 만루포였다.

한화는 최진행이 가져온 초반 승기를 경기 끝까지 지켰다. 선발투수 김민우가 5.2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김태균의 추가 적시 1타점, 제라드 호잉의 솔로포 등을 더해 7-3까지 달아났다. 임준섭~안영명~김경태~박상원~정우람으로 이어지는 볼펜투수들은 리드를 9회까지 지켰다. 한화는 최종 7-3으로 승리하며 주중 3연전 첫 경기에서 먼저 웃었다.

대전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류현진 이후 전멸…ERA 1점대 투수 부활하나

〈2010년〉

〈평균자책점〉

2000년대 류현진이 1점대 유일
KBO 1점대 ERA 투수 현재 4명

‘타고투저’의 시대가 오래 지속된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시즌 종료 시점에 1점대 평균자책점 성적을 지닌 투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인구의 반발계수를 낮추며 투수들에게 힘을 실어준 2019시즌엔 9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점 1위의 탄생을 축하하게 될지도 모른다.

14일까지 선발 투수별로 7~9차례의 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리그에서 1점대 평균자책점 기록 중인 투수는 4명이다. 두산 베어스 조시 린드블럼(1.53)과 이영하(1.8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LG 트윈스 타이러 윌슨(1.66)과 SK 와이번스 양형 산체스

(1.84)도 준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아직 치른 경기보다 치려야 할 경기가 훨씬 더 많이 남은 시즌 초반이지만,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1점대 평균자책점 성적으로 올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다.

최근 10년 사이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친 선수는 2010시즌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던 류현진(현 LA 다저스) 뿐이다. 해당 시즌 25경기에 나서 192.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82(16승4패)를 달성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3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5월 25일 대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전서 완봉승을 거둔 뒤 1.85를 마크하며 1점대 평균자책점에 진입했다. 시즌 종료까지 나머지 15경기서 줄곧 1점대를 유지하면서 자신



두산 린드블럼



두산 이영하



LG 윌슨



SK 산체스

의 KBO 역대 최소 평균자책점 성적을 완성했다. 류현진은 해당 시즌 두 차례의 완투승과 세 차례의 완봉승을 거두며 위력적인 면모를 선보였다.

당시 류현진의 성적 역시 상당히 희귀한 기록이었다. 1998년 현대 유니콘스의 정명원과 해태 타이거즈 임창용이 나란히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이후 12시즌 만에 배출된 1점대 평균자책점 1위였던 까닭이다. 프로야구 출범의 해인 1982년 OB 베어스의 박철순(1.84)을 포함해 역대 최소 평균자책점 성적을 기록한 1993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의 선동열(0.78) 등 1997년까지 1점대 이하의 평균자책점으로 부문 1위에 올랐던 투수가 13명에 이르렀지만, 2000년대에는 류현진이 유일한 1점대 평균자책점 성적 보유자다.

2019시즌을 앞두고 공인구의 반발계수를 낮추면서 리그 팀 타율, 평균자책점의 수치가 지난해보다 두루 낮아진 상태다. 류현진 이후로 명맥이 끊긴 1점대 평균자책점 투수의 등장 여부를 두고 KBO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사직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박경수 1500경기 출장…KIA 새 외인 터커 첫 훈련

〈KT〉

14일 게임 브리핑

●NC 루친스키, ERA 1점대 눈 앞

NC 다이노스 외인 투수 드류 루친스키가 창원 홈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5안타 무4사구 3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4-1로 앞선 8회 강윤구에게 마운드를 넘긴 그는 올 시즌 9경기에서 3승째(2패)를 챙기고 56이닝 동안 13자책점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ERA) 2.09로 1점대 ERA 진입을 눈 앞에 뒀다.

●LG 장원삼, 롯데전 5이닝 4실점

LG 트윈스 대체선발 장원삼이 사직 롯데 자이언츠에서 5이닝 4삼진 5안타로 4실점했다. 투구수 82개로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했지만, 상대 타선에 세 차례 홈런을 허용하는 등 시즌 2패째를 떠안았다. 2, 4회 이대호에게 연타석 홈런을 허용한 장원삼은 4회 2사 1루 상황에서 채태인에게 2점 홈런을 맞았다. 장원삼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7.94가 됐다.

●박경수, 역대 44번째 1500경기 출장

KT 위즈 박경수가 광주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 2루수 7번타자로 선발 출장해 KBO리그 통산 44번째로 15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했다. KT 선수로는 이대형에 이어 두 번째. 2003년 1차 지명으로 LG 트윈스에 입단한 박경수는 그해 4월 6일 잠실 SK 와이번스와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2008년 6월 20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500경기, KT로 이적한 2015년

6월 18일 수원 NC 다이노스전에서 10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사인 안한 KIA 새 외인 터커, 팀훈련 의욕

13일 홈구장에서 개인 훈련에 돌입한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가 KT 위즈전을 앞두고 팀 훈련을 처음으로 소화했다. 터커는 취재진에게도 “아름다운 야구장이다. 잘 부탁한다”며 밝게 인사하며 빠른 배트 스피드로 큼직한 타구를 날려 보냈다. 터커는 아직 KIA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터커는 취업비자 발급 이후 입단 계약을 맺고 1군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터커의 타격 훈련 모습을 지켜본 김기태 감독은 “장갑을 끼지 않고 타격을 하더라. 손에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면 맨손으로 타격을 하지 못한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스윙 스피드가 인상적이었다. 1군에서 함께 훈련하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곧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터커는 메이저리그 243경기에서 타율 0.222에 23홈런·68타점·65득점을 마크했다.

●샌즈가 시원하게 삭발에 한 까닭은?

키움 히어로즈 외국인타자 제리 샌즈가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앞서 삭발이라 해도 무방한 수준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나타나 눈길. 장정석 감독도 “아들이랑 장난치다 잘랐나?”라며 갑작스런 샌즈의 삭발에 궁금증을 표했다. 국내 타자들의 삭발은 보통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고자 ‘투혼’을 발휘하고 싶을 때 의지를 다지는 표현으로 쓰인다. 성적이 부진한 편도 아닌 샌즈는 이에 대해 “사실 별 다른 의미가 없다. 그냥 날씨가 더워서 짧게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삭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자르고 나서야 알았다. 동료들도 자른 이유를 궁금해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